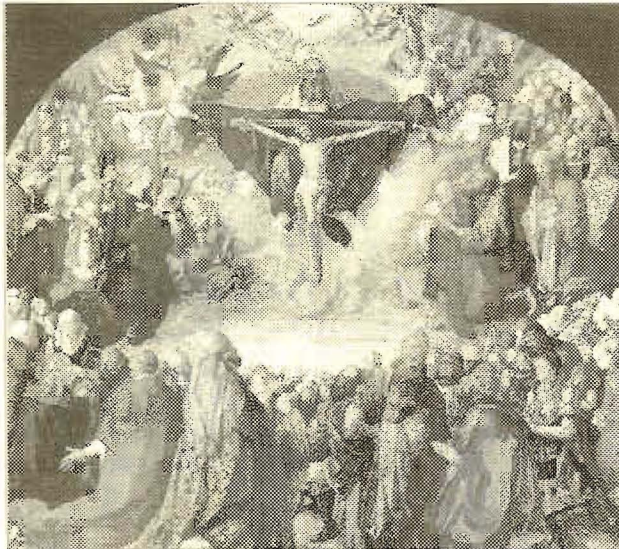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모성월 · 부활 제5주일
제34권 25호(가해) 2014·5·18

[묵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길이 참 많다.
그러나 목적지에 따라 바른 길도 있고 엉뚱한 길도 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이 길의 원리가 곧 진리이며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이라는 말씀이다.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그 원리는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십자가의 원리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주 일 10시 미사	(연) 이상일 요셉,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엄익찬 안토니오, 이숙자 루피나 & 이용완 & 김정숙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덕철 루카, 이병완 마리아, 이명자 로사, 박노현 요한 (생) 이철희 베드로, 남인구 야고보 가정, 차인수 안드레아, 박정순 토마스, 김영숙 & 송재만, 엄정자 분다, 홍석인 체칠리아, P.V.4반 가정들,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6.1-7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제 2독서 베드로 1서(1Peter) 2.4-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 음 요한(John) 14.1-1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7	187	164
봉헌	264	264	264
성체	교백	304	289
파견	169	162	332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3(의 계속)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낳으셨습
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낳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지혜는 박사들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신자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4 높이신 분의 힘이 혼인도 하지 않으신 당신을 품으시어
당신의 태중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추수꾼들에게 풍요로운 들녘처럼.
찬미합니다. 알렐루야!

5 태중에 하느님을 잉태하신 동정녀께서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언니의 태중 아기가 인사를 듣고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하느님
의 어머니께 용약하며 노래하듯 기뻐 외칩니다.
"기뻐하십시오. 썩지 않는 줄기부터 뻗어 나온
포도 넝쿨이시여.

기뻐하십시오. 튼실한 열매를 맺으신 분.
기뻐하십시오.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양육자를 키우신 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를 낳으신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연민의 새싹이 풍요롭게 돌아난 땅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자비가 넘치는 넉넉한 식탁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기쁨의 초원에 꽃이 만발하게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영혼의 안전한 포구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은혜로운 청원의 분향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오 세상을 위하여 하느님의 노여움을 푸시는 분.
기뻐하십시오. 죽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관대함이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을 신뢰하며
죽은 자들의 담대한 말씀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6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엇갈리는 생각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지혜로운 요셉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근접하지 못한 그분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은밀한 사랑.
그러나 비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외칩니다. 알렐루야. <◆계속>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 제자들은 마음이 산란합니다. 유다의 배신 예고(요한 13,21-30)와 함께 예수님의 이별 예고(요한 13,31-35),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否認) 예고(요한 13,36-38) 등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이미 산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의 첫 말씀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음 편할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중 제일 큰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조폭, 못된 상사, 미운 사람 등)이나 어떤 대상(귀신?, 돈, 입시 등)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지않거나, 도망치거나, 잊어버린다면 그것에서 잠시라도 헤어 나올 수 있지만,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약한 의지, 나이 들면서 갖는 무기력, 죽음에 대한 공포, 매번 실패했던 유혹에 대한 약함 등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항상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기에 언제나 내 앞에 있으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잘 안될 것 같은 징조(?)들이 정말 나를 힘겹게 할까요? 하나님의 푸근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 앞에 마음이 산란해질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요한 14,4 참조)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요한 14,11 참조) 그 산란함에서의 탈출 통로임을 잘 알려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서는 나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 지금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잠시 자리를 뜬 엄마에 대한 부재(不在)의 체함때문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엄마는 아기를 잠시 내려놓고 아기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내 삶의 공허함에 힘겹습니까? 터져 나오는 울음 속에 자신이 묻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요한 14,1)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마음과 판단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엄마의 일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믿음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음과 두려움, 산란함을 멈추고, 하느님을 조금 더 기다릴 줄알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함께하심을 더 굳게 믿을 줄도알아야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강귀석 신부/서울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한국 가톨릭 신자수 531만 명

전세계는 12억 3천만 육박...교황청 최근 통계연감 발표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발행한 2012년판 교회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2년 12월31일 기준 전 세계가톨릭 신자 수는 12억 2,862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531만 명으로 세계 228개 국가에서 47번째로 신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주교 수는 5,133명, 사제 수는 41만4,313명, 수도자 수는 75만 7,843명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세례자 수는 1,640만 8,302명이며 그중 7세 미만의 유아세례자 수는 1,371만 2,72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아영 아가다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제11회 백삼위한마당 가족체육대회(18일 오늘 주일)
 - 미사 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체육대회 일정 : 오늘주일(18일) 11:00am~5:15pm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경기종목 : 피구, 오재미, 엉덩이뒤에 풍선달고 꼬집어 터뜨리기, 축구,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어깨마주잡고 발등풍선 터뜨리기, 짝짓기, 신발멀리 던지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 경품 : 한남마켓, 베스트바이 선물권
 - 경품추첨대상 : 추첨진행중 참석자로 제한, 추첨권 당일배포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시 : 5월24일(토) 오전 10시 성마가렛 매리 본당
 - 주례사제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우리본당에서 4명의 학생과 교사1명이 견진후보자)
 - 참회예절 : 5월23일(금) 오후 7시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 ◆ LA 대교구 정승구 안드레아 신부 사제수품식 및 첫 감사미사
 - 사제수품식 : 5월31일(토) 오전 9시 LA주교좌 성당
 - 첫감사미사 : 6월1일(주일) 오후 5시 성 그레고리 한인 성당(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 ◆ 2014-2015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장학금 지급 : 8월10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주시 기 바랍니다.

-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에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심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10일) 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출발(한국어권 8월11일, 영어권 8월10일)은 함께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미주지역 참가단을 위한 지정석 할당은 선착순
 - 한국성지순례 : 8월13일~14일
 - 시복식 : 8월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참가신청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미사전례 독서자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학생으로 현재 6~12학년
 - 모집마감 : 6월8일(주일)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44-8895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18일(주일) : 성당체육대회날, 친교자리는 각 구역별로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을 나눕니다.
* 주일학교 : 수업 없습니다.
 - 5월25일(주일) :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쉽니다.
* 주일학교 : 수업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민석 김영숙 김옥보 남명자 노혜숙 민기남 박선희 박음전 박정희 박종민 배태임 서영주 송재훈 신경훈 안민수 오석만 오신재 이미경 이민상 이상곤 이우성 이은록 이인두 이일길 정규숙 정남형 정동호 정열모 정훈모 조소영 최희수 최재영 최진수 황인종 황지영 황철수 한길선례
합계 : \$4,700	
주일미사 헌금 : \$2,754	

성전헌금	권태만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영숙 남명자 노혜숙 민기남 박선희 박음전 박정희 서영주 신경훈 오석만 이미경 이민상 이상곤 이우성 이은록 정규숙 정남형 정동호 정열모 정훈모 최재영 최진수 황인종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2,580	
주보광고후원 : \$1,000 한남마켓도네이션 : \$290	

공지사항

- ◆ 5월25일 주일 학생미사(영어)를 한국어미사로 대체합니다.
26일(월)이 메모리얼데이 연휴입니다.
- ◆ 첫영성체 리허설, 고해성사, 예식
 - 리허설 및 고해성사 : 5월31일(토) 오후 3시~5시
 - 예식 : 6월1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교무주임 ☎(310)780-8895
-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5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7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참가비 : \$50(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교사 ☎(310)613-9116
- ◆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대상 : 한국학교 재학생(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주제 : '우리가족' (3분이내에 자유롭게 말하기)
 - 참가신청 : 5월19일까지 ksaaca@hotmail.com
-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SAT반
 - 등록비 : 첫째 \$200, 둘째 \$190, 셋째 : \$180, 넷째 : 무료
(6월15일전까지 등록하면 20% 할인 혜택), SAT반 \$200
 - 접수처 : 한국학교 교사실(2층)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행사 안내
 - 제27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5월29일~6월1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의 한국지구장)
 - 접수마감 : 5월18일(참가비 \$150)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네스)

노공동체 5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18(주일) 체육대회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8(주일) 체육대회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6(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5/18(주일) 체육대회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5/18(주일) 체육대회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5/18(주일) 체육대회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정병욱 올리아 404-1607 5/18(주일)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체육대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5/18(주일)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8(주일) 체육대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5/18(주일) 체육대회
	2	금유미 크리스시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시아 482-91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5/18(주일) 체육대회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전대사(全大赦)란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용서받았어도 그 죄로 말미암은 상처에 대한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부족하여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참된 참회와 보속을 하지 못함으로 잠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 satisfactio)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보속을 다 하지 못한 경우 연옥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大赦, indulgentia)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사는 죄의 사면이 아니라, 보속을 다하지 못한 벌에 대한 사면입니다. 이 대사의 근원은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hesaurus)이며, 교황과 교구장 주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마태 16, 19 참조)에 의해 그 보고의 은총을 입도록 해줍니다. 이 대사는 잠벌을 전부 없애 주는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와 일부를 없애 주는 부분대사(部分大赦, indulgentia partialis)로 나누어집니다. 이 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파문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부산교구시복준비위원회〉

대형참사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의 눈으로 이런 인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참사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주의의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경제적 사고나, 동물적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 기술적 사고는 갈수록 발전하는 반면, 정의로운 거래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 공동체 정신과 같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발전은 거기에 한참 뒤쳐져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균열이 생겨납니다. 이번 참사는 그 균열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예언자적 소명을 발휘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 소명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눈감지 않고,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기치로 하는 복음적 가르침으로 내 주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게 곧 부활의 삶이기도 합니다.

다. 부활은 겉으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소리 없이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고, 이 고백은 온 나라가 초상집인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부끄럽고 어둡더라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장

복수입니까? 용서입니까?

“그런 놈은 시청 앞 광장에 매달아 놓고 찢어 죽여야 합니다. 나라가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교도소에 찾아가서라도 꼭 복수할 겁니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게 사랑하는 형을 잃은 동생이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네 형제간 우애는 돈독했고 함께 모이면 두려울게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 형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뒤, 우울증을 앓던 둘째 형이 자살했습니다.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막내동생마저 먼저 떠난 두 형을 따라갔습니다. 네 형제 중 유일하게 남은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이겨내고 삶을 이어갈 에너지가 그에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복수의 마음뿐입니다. 복수는 그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제 마음의 평화도 흔들어 댁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탐욕, 나태, 식탐, 색욕, 교만, 시기, 분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 세상에는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 엽기적인 살인 사건, 심각한 자연 파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고 하느님은 존재하시는가? 계시다면 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의문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 모든 비극을 감싸 안아줍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자유의지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다 아침 일찍 회사를 향해 문을 나섭니다. 길가에 성당이 보입니다.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루하루 분노속에서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조옥희 아우구스티노 / SBS PD·서울주보>